

'이념 논쟁' 정율성 기념사업 대폭 축소

광주시·남구·화순군, 음악 축제 예산 삭감...역사공원은 3월 준공 남구, '정율성 전시관'→'양림 문학관' 변경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그동안 광주·전남 곳곳에서 진행됐던 정율성 기념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복원과 중국 등에서의 정율성 행적을 이유로 기념사업 철수를 요구한 데 따른 여파로 광주시와 남구, 화순군 등은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취소 또는 변경, 보완 등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광주시, 광주 남구, 화순군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정율성 음악 축제와 동요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음악 축제 개최비 2억 84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향후 추가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정율성 음악 축제는 2005년 '정율성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매년 개최됐으며, 광주 남

구가 주최하다 2007년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면서 매년 2억~4억원을 지원해왔다. 최근엔 성악공구, 음악제 등으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현지에서 별도 행사도 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전부터 (정율성 음악 축제 등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도 정율성 생가로 알려진 양림동에서 추진하던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남구는 사업 명칭을 '양림 문학관'으로 변경하고, 양림동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사업 내용을 바꿨다.

정율성이 2년간 재학한 것으로 알려진 화순 능주 초등학교에 설치된 대형 벽화는 학교 측 철거 요청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화순교육지원청, 학부모, 주민들 사이에서 철거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화순군은 능주면에 조성된 초가 모양의 전시관(고향 집) 활용 방안도 당시 예산을 지원한 전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정율성 기념사업 논쟁의 도화선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공원 명칭,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공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역사 공원'이란 명칭은 공원 분류상 불합리한 만큼 새로운 이름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토지 보상비 35억원, 조성비 13억원 등 48억원을 들여 광주 동구 불로동 878㎡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의 여러 행적을 이유로 공원 조성 철수를 요구한 이후 광주는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휩싸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한신협 신년 발행인 세미나 참석

광주·전남 유일 회원사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한국신문협회 부회장·사진)은 18일 오후 한국신문협회 '2024년 신년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들은 지난 2023년의 신문·언론의 상황과 올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세미나를 가졌다.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인공지능(생



성형 AI)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51개 신문과 2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구직청년 1500명에 250만원씩 지원

19~39세 대상 '광주청년드림수당'...재학·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광주시는 "올해 구직 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 '청년 드림 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171800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71700명은 5~6월 모집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39세 구직 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재학생, 휴학생, 졸업 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청년에게 5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구직탐색·취업 준비·역량 강화·창업형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광주 청년 드림 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에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28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되는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과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6000여명에게 140억원을 지원했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하세리머니로 김관영 지사와 함께 북두머니 줄을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식으로 첫발

윤석열 대통령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적 지원' 김관영 도지사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5대 산업 육성할 것'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희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전북 지역 시군 단체장,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전북자치도 출범 경과보고, 기념사, 홍보영상 시청,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

점 짚짚히 행하겠다"며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임을 도지사로서 당당히 선포한다"며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시험대로서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전북 간 상생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전북특별

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적 출범이 있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힘을 다한 김관영 전복지사와 전북도민께 축하드린다"며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의 새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드론천국' 전남, 초라한 경쟁력

▶1면에서 계속

전남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추고도,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의 경우 ▲전국 최대 비행시험 구역(고흥·광양)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고흥·나주·여수·구례)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 ▲고흥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등 최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프라와 실증 사업 등을 100% 활용해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면서 관련 산업을 키워나가는 기업이 유자하거나 벤처 기업들의 창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 활용 정책도 아쉬움이 크다. 드론 방제 서비스의 경우 상용화될 경우 30만 ha에 달하는 전

남 경기면적을 고려하면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치단체 드론 관련 사업들은 대형 무인기 연구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남지역 업체 참여가 어렵다는 게 학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김기원 동강대 AI 드론과 교수는 "광주·전남 연구인력을 활용해 한국형 방제 드론, 장비, 농업용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드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드론산업을 활용할 다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 4년 전인 지난 2019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미래 비체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추진중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돈 회수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한다.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한다. 또한 동일 지번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한다.

2024년 1월 19일
해 남 군 수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가수	비고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평리	425-5	임
	338-2	임
합 계		4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4기

2. 개장사유: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연고자와 합의)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자가 임의 개장
- 기 타: 개장공고 이후 시일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4. 개장 후 안치장소: 남도광역무묘장(해남군)

5.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2. 12.(3개월)

8. 신고 처: 해남군청 기후문화체육지원팀(☎061-530-5084)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진술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 용문 태양광발전소

2. 발전소의 위치

- 전남남도 영광읍 영산리 1098-10, 1098-11, 1098-12, 1098-13, 1098-14, 1098-15, 1098-16, 1098-17, 1098-18, 1098-19, 1098-20, 1098-21, 1098-30, 1099-5, 1099-6, 1099-7, 1100-2, 1100-6, 1101-4, 1101-5, 1102-1, 1102-6, 1102-7, 1129-13, 1129-14, 1129-15, 1129-16, 1129-17, 1129-18, 1129-19, 1129-5, 1129-6, 1129-7, 1129-8, 1129-9

3. 발전소의 면적

- 용문 태양광발전소 (680,926㎡)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용문 태양광발전소 (94,206.69kW)
- 사업개시예정일: 2026년 12월 30일
- 사업 운영기간: 2026년 12월 30일 ~ 2046년 12월 30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주식회사 케이이엔

6.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월 19일 ~ 2024년 1월 25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7.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556-1504
- FAX) 02-556-150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권공고)

주식회사 대동전력(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라인전력(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은 2024년 1월 17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영업 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가게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월 19일

분할합병대상: 정보통신공사업(제140293호)
"갑(양도인)" 주식회사 대동전력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로7
대표이사 장 미영

"을(양수인)" 주식회사 라인전력(이명)
인원광역시 남동구 안주대로850번길 6-1.
201호(한수동)
공동대표이사 김지은, 정태진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권공고)

주식회사 경일기전(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천호전기(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24년 01월 15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포괄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가게 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월 19일

"갑" 주식회사 경일기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10, 12203(오봉동, 마루아파트(비씨지자산개발))
대표이사 최 미영

"을" 주식회사 천호전기
광주광역시 서구 유곡로 151(덕동동)
대표이사 최 미영

해산 및 재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8월 30일 주주총원선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가게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주식회사 황동에너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5, 306동
1101호(선암동, 선운리비프라인)
청산인 조수 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권공고)

주식회사 성진전력(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명전력(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는 2024년 1월 15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가게 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월 19일

분할합병대상: 전기공사업(양도-00534)
"갑(양도인)" 주식회사 성진전력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66번길 9, 302호
(백운동, 대명백운스카이라인(비프라인))
대표이사 최 미영

"을(양수인)" 주식회사 대명전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성로17번길 50, 13층(명동)
사내이사 최 미영

산행안내

1월20일(토)

▲광주초승희 1월 20일(토) (제645차) 정기산행
경남도 신라령 트레킹(4시간) 30분 평양동 롯데리
트 7차지공출발(04시 40분) 3월말은 휴교 및 04시
50분 백운초승희 (05시) 롯데리출발 (05시 10분) 광
주에출발(전날) 후로 010-4621-2166, 010-6702-
97% <http://cafe.daum.net/gwangjuhosan>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